

사회과 토의수업 방법으로서의 월드카페에 대한 연구

이 서 영

대구관음초등학교

지성은 불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퍼져있는 만큼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할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적인 신념이다.

-John Dewey-

I. 들어가며

토의는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집단구성원이 협동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설규주·정문성·구정화, 2011).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참가자들이 특정한 주제나 문제를 놓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각자의 의견을 협동적으로 제시하고 의논하며 여러 가지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거나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는 말하기·듣기 활동이자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의 의사소통 방식이다(이상우, 2011). 즉, 토의는 개인보다는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단독적이기보다는 협동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포함한다. 그렇다보니 토의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다원화되고 강력한 정보화의 영향으로 그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높아지면서 요구되는 시민성의 필수적 요소인 고차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 효과적인 수업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대적 요구이외에도 토의수업의 목적 및 필요성¹⁾때문에 교사들은 사회과 수업방법으로 토의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²⁾

학생들도 토의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토의수업을 좋아하는 이유³⁾를 보면 학생의 생각은 교사의 토의에 대한 관점과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이 수업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참여도를 높이는 정도로 보지만, 수업의 대상인 학생들은 토의수업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다. 학생은 교과서와 공책은 서랍에 넣어두고 관심 있는 것에 대해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동시에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 물론 토의수업은 기존의 수업방식보다는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제공해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게 한

1) 정문성(2011)은 토의수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4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민주시민의 필수조건인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한다. 둘째, 고급사고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도덕발달과 태도의 변화다. 넷째, 수업참여도가 증가한다. 이처럼 토의수업은 사회과교육의 기능 및 태도 목표를 충족시키는 사회과 수업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설규주·정문성·구정화(2011)의 '사회과 토의수업 실태 및 교사들의 인식조사'에서도 교사들의 절대 다수가 토의수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업에서는 그 활용정도가 높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수업진도와 토의수업 준비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많이 꼽았다.

3) 학생들은 토의수업이 '비공식적이고 자연스럽다. 다양한 여러 정보를 획득한다. 다양한 여러 사람을 만난다. 관심사를 나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문법·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끝에 교사가 평가·정리해줄 때 많은 것을 배운다. 경청한다.'라고 느끼므로 선호한다(Lynch, 1996; 정문성, 2011).

다. 하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하여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모아진 의견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게다가 시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최근 수정 고시된 2009개정 사회과교육과정(2012.07.09)⁴⁾이 강조하는 바른 인성의 함양과 실천을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인성은 사회과교육 목표의 가치·태도 면에 직접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가치·태도가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하므로 이는 교과 전반적인 목표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바른 인성은 교실이라는 사회 속에서 다듬어지는 개인의 심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실 사회라는 환경의 풍토가 새로워져야 한다. 특히 토의수업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기 위해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공공의 발전을 위해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분야에서 도입된 대화를 통해 통찰력과 행동력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월드카페’를 사회과 토의수업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월드카페 과정 속에는 대화가 중심이 된다. 월드카페는 인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창의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소규모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교류하며 집단을 강화하고 독창성을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통찰력을 부여한다. 학생은 특히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학생의 자유로운 ‘말’은 교사가 수업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유발하지만, 월드카페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인 ‘말’이 문제해결 ‘행동’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작용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배려와 관용을 기르는 등 바른 인성의 함양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월드카페의 사회과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 월드카페를 사회과 토의수업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사회과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회과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II. 월드카페

1. 정의 및 특성

월드카페는 1995년 Brown과 Issacs이 제안한 대화방식이다. 월드카페는 주어진 질문에 대해 최소 12명에서 1200명까지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발전시키며 공유하는 대화방법으로 소규모로 팀을 구성하여 대화를 시작하여 구성원들이 서로 교차되어 대화를 지속발전시켜 여러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해답을 찾아간다.

4) 초등학교 교육목표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에 ‘바른 인성의 함양’을 추가하였고, 하위목표에는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에 ‘배려하는 마음’을 추가하였다. 내용영역에서 수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3·4학년 (9)~④문화적 차별과 편견이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것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5·6학년 (4)~②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이해하고,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8)~①정보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예, SNS, 저작권 문제 등)을 이해할 수 있다. → 미치는 영향(예, SNS의 영향, 저작권 문제, 사이버 일탈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월드카페(World Cafe)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와 같은 대화 방식을 조직변화 분야에서 적용하게 된 것은 두 가지 가정에 의해서다.

첫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창의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대화할 때 단순한 개인의 총합이 아니라 집단의 총체적 지혜를 모을 수 있고 이는 그 집단에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화는 이미 행동에 옮겨진 것이다. 말과 행동이 분리되어 각각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하여 대화가 활발해지면, '말'은 이미 '행동'의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각 단계가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 속에 계속해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각 행동에서 대화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Brown & Issacs(2005)은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을 때, 그리고 대화가 진정으로 생기가 넘칠 때, 자연스럽게 누가 다음 단계를 위한 책임을 맡게 될지를 발견하면서 스스로 일하는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즉, 월드카페는 인간적인 행동주의로, 대화를 통해 '우리'의 꿈과 미래를 공동으로 구성한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대화는 가상의 경계를 넘어 모두를 적극적으로 전체의 미래에 기여하게 한다.

<그림 18> 역동적인 대화의 구조
(출처: Brown & Issacs, 2005)



2. 운영원리

월드카페는 <표1>의 원리를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이 원리의 순서에 따라 설계하고 운영할 때는 각 원리들을 계속해서 적용하면 된다.

<표 51> 월드카페 대화 원리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카페 원리
1. 환경을 설정하라
2.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라
3.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을 연구하라
4. 모두가 기여하도록 격려하라
5. 다양한 관점을 교류하고 연결하라
6. 패턴, 통찰력, 심도 있는 질문을 찾기 위해 잘 들어라
7. 공동의 발견을 거두고 나누어 가져라

출처: Brown & Isaacs (2005).

<그림 19> 환경 설정의 중요성



환경설정은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고,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도울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학습을 유도한다. 카페는 사적인 공간도 아니고 공공적인 공간도 아닌 중립적인 공간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표 2>에 유의해야 한다.

<표 52> 월드카페 환경 설정 시 주의사항

환경설정 주의사항
실제 카페와 비슷하게 환경 꾸미기
카페의 목적을 반영하는 이름 붙이기
크고 열린 공간에 작은 테이블을 놓아 대화의 친밀감을 조성하고, 각각의 테이블은 다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기
그림, 음악, 화초 이용하기
안내원과 호스트 역할을 할 자원봉사자 두기
‘호스트, 이동자, 게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해 상호 우정과 환대의 감정 북돋우기
‘씨앗 심기’, ‘아이디어의 수분’ 등과 같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생명 시스템의 이미지 심어주기
전체 대화 도중에 청중에게로 나아가 참가자들과 함께하기
너무 격식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는 의상 착용하기
참가자들에게 선물 나눠주기
출처: Brown & Isaacs (2005).

이상에 따라 설정된 환경은 참가자에게 안락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 되어 생성력 있는 대화를 이끌어낸다. 대화의 시작점이 되는 질문은 참가자 모두에게 유의미하고 흥미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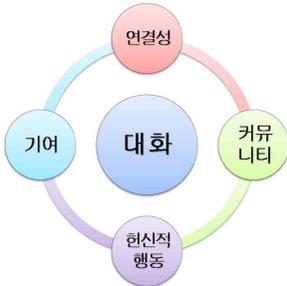
질문이 주어지면 카페호스트는 모두가 기여하도록 격려한다. 카페 대화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가져옴으로써 전체지성이 풍요로워진다. 그렇기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이는 개인적 참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여에 초점을 두므로 ‘내’가 말을 하고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기여의 기회는 단순히 참여할 때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존중하고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기여가 지식창출과 더불어 소속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카페 대화에서는 테이블을 이동할 때마다 대화들이 되풀이되고 확장되면서 사람들과 아이디어 간의 연결 밀도가 높아진다. 카페 대화는 관심 있는 질문에 초점을 두는 생명의 네트워크 역할을 이용해 개인적인 관계의 망을 풍요롭게 하고 전통적 경계를 뛰어넘는 공동체 경험을 양성한다. 그리고 유대감과 소속감이 증가할수록 공동선을 위한 헌신적인 행동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교류하고 연결하라는 다섯 번째 원칙은 이처럼 개인적인 것과 집합적인 것의 조화를 가져온다.

3. 운영방법

월드카페는 대체로 한 회당 20~30분 정도 걸리는 3번의 대화와 마지막의 전체 그룹 대화로 이루어진다.

<그림 20> 연결의 문화



각 회당 시간은 참가자의 집중력 여부에 따라 융통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표 53> 월드카페 적용 목적 및 상황

적용 상황
실생활에 관한 이슈와 질문을 둘러싼 지식공유, 독창적 사고 자극, 커뮤니티 구축, 가능성 탐구를 필요로 할 때
핵심 도전 과제와 기회의 면밀한 탐구 수행이 필요할 때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고자 할 때
기존의 그룹에서 관계와 공동 성과의 주인의식을 공고히 하고자 할 때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 창출을 얻고자 할 때
그룹의 크기가 12명을 넘고 모든 사람이 기여하기를 바랄 때(특히 소그룹 대화의 친밀성과 대그룹의 참여와 학습능력의 재미를 결합하고자 할 때)
최소 90분짜리 카페를 가질 때
출처: Brown & Isaacs (2005).

첫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카페 과정과 에티켓을 소개한다. 이젤에 게시해 두든지 카드 형태로 각 모둠에 나누어 줄 수 있다. 카페 과정과 에티켓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참가자들이 건설적인 대화를 창출할 수 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카페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모두 받아서 의문을 해결해줌으로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표 54> 월드카페 에티켓

카페에티켓
생각과 경험을 나누라
이해하려는 자세로 들어라
아이디어를 연결하라
패턴, 통찰력, 심도 있는 질문을 찾기 위해 함께 귀를 기울여라
출처: Brown & Isaacs (2005).

첫 대화를 위한 질문을 제기한다. 질문은 전면에 게시하거나 각 모둠에 카드로 나누어준다. 필요하면 질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설명을 덧붙이지만, 대답을 제공한다거나 대화를 지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듬은 4명으로 구성하고,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위에 전지와 색깔펜, 화초 등을 둔다. 혼자 이야

기하지 않도록 말하기 도구-돌멩이나 모형마이크와 같은 표식-를 두어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한다. 말하기 도구를 사용하므로 도구를 들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가능한 한 단순명료하게 표현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의 관점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다.

첫 대화가 끝나면, 호스트만 남고 나머지 구성원은 자기가 원하는 다른 테이블로 이동한다. 호스트를 중심으로 두 번째 대화에서는 첫 번째 대화에서 나눈 내용을 게스트들에게 설명하고, 새로운 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대화를 나눈다. 테이블 위에 전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첨가한다. 두 번째 대화가 끝나면, 다시 호스트만 남고 이동한다.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 대화도 진행한다. 계획한 횟수의 대화가 끝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호스트는 그 테이블에서의 아이디어가 변화발전한 내용을 원래 구성원들에게 설명한다. 다른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나눈 대화를 통해 변화발전한 각자의 아이디어를 추가하면서 대화내용을 공유한다.

다른 모둠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다보면, 점점 더 커지는 생각 속에서 자신이 발견한 핵심 내용을 연결할 수 있게 된다.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면서, 창의력과 통찰력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디어가 전개된다.

카페 끝에는 전체 대화를 한다. 잠시 침묵하면서 이동하면서 배운 것과 주어진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나 해결책을 각자 정리할 수 시간을 준다. 벽에 붙이고 전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 테이블의 의견을 정리한 후, 전체에서 대화내용을 공유한다.

Ⅲ. 월드카페를 활용한 초등학교 사회과 토의수업

1. 월드카페와 사회과교육

앞서 살펴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월드카페는 하나의 문제해결방법으로 협동학습과 토의학습의 전략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어느 교과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일반 모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동시에 사회과교육에의 독특한 적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월드카페의 사회과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월드카페는 사회과교육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적합성을 논의할 수 있다. 우선 학습자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수업보다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수업 대부분의 활동이 되므로 자기주도적 학습 및 협동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또 학습자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선정하므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수업방식이 강의식 전체학습이 아니라 대화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낮다. 장경원(2012)의 연구에서 수업에서 월드카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약80%의 교사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긍정적 응답을 한 교사들은 월드카페를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아이디어 도출 및 수렴, 수업참여도 증가, 수업분위기 개선,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개발, 학습효과 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⁵⁾

5) 장경원(2012)은 교사들이 제시한 의견을 크게 수업, 학생, 교사라는 세 영역으로 유목화했다. 첫째, 월드카페를 활용하면, 학생의 수업참여도가 증가하고 수업이 흥미 있고 즐거운 분위기로 진행된다는 것을 통해 '역동적인 수업'이 된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 또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파자-전아-의사소통 능력 등이 향상되므로 '효과적인 학습'이 된다. 끝으로 월드카페가 이루어지는 동안 교사는 학생들의 생각과 이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학생이해 증진'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학문·철학적 측면에서 볼 때, '대화'방식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통합하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성을 함양한다. 사회과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대화'는 특히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 용이하다. 또한 반복적이지만 다른 대화가 시도되므로 사회과교육이 지향하는 고차적 사고 함양에도 적합하다.

국가사회적 측면에서도 월드카페는 여러 차례 모둠을 이동하면서 하나의 커다란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므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증대되고 이는 바람직한 정체성을 함양하게 된다. 학습자의 학습부담을 낮추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시사적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게 된다. 월드카페의 에티켓을 지키고 절차를 따르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월드카페는 협동학습과 개념도의 전략을 복합적으로 차용하므로 각각의 사회과교육적 함의 또한 월드카페와 관련지을 수 있다. 협동학습과 토의학습의 복합적인 전략은 그 목적 면에서 공통적으로 주제와 관련해 많은 것을 알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갖게 하며, 수업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말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고, 주제에 대한 진실에의 접근 및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며, 수업을 통해 탐구, 창의적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합리적 의사결정력을 신장시킨다(이상우, 2011). 사회과에서도 이광성(2004)과 고훈석(2001)의 논의에서 협동학습과 토의학습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사회과 협동학습은 우선 학교교육의 주요 관심인 인지적 목표의 달성에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정서적, 사회적 목표 달성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으며(손병노, 1996)7). 그리고 개념도는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관련지어 유의미 학습을 활성화하게 한다. 또한 개념도와 개념간의 위계 관계를 시각화하므로, 인간이 시각정보, 즉 이미지를 회상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이용해 학습을 촉진시킨다8).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근거로 월드카페가 여러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지만, 사회과교육적 적합성을 상

감안할 필요가 있다.)

- 6) 이광성(2004)은 사회과 수업에서 협동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논쟁적이거나 경험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여 반성적 사고와 담론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선행 지식을 진단하여 인지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훈석(2001)은 초등학교 사회과 교실에서 협동학습은 활동중심으로 제시할 때에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활동 중심의 학습과제에서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며 교과에 대한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한다고 했다. 이는 협동학습에서의 난점으로 꼽는 과제로 제시된 것을 미리 하지 못한 경우와 보고서 작성 및 발표가 충분한 토대로 하지 않으며 단위시간 내에 협동학습을 마무리하는 것과 적절한 보상체제가 미비한 것에서도 조사보다는 활동중심의 학습과제가 협동학습에서 더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 7) 인지적 목표와 관련해볼 때, 개념의 습득이나 이해가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지므로 효과적이다. 기능적 목표와 관련해볼 때, 다양한 사회과의 고차적 사고능력과 자료처리능력 및 인간관계능력이 타인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경험을 토대로 배양된다. 수업과정에서 서로가 피드백과 비판, 도전 및 지원 등을 제공하므로 보다 숙련된 사회과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가치태도 목표에서도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기회를 보장하므로 다양한 관점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세울 수도 있다. 협동학습이 무엇보다 의의를 지니는 것은 '참여'면이다. 학생들이 사회에서 지향하는 참여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참여와 관계된 태도나 행위들을 훈련하는 경험이 필수적이다(손병노, 1996).
- 8) 이원민(2011)은 개념도를 활용한 협동학습은 학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흥미도 향상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학업성취도 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했다.

당히 함의하는 하나의 수업 방법으로서 볼 수 있다.

2. 적용주제 예시

사례영역은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현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1학기 2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 내용영역을 장경원(2012)의 연구에서 토의주제로 범주화한 개념 및 원리, 경험 및 실천, 아이디어 도출 및 개발 등의 요소로 분류해 보았다.

<표 55> 월드카페 토의주제

범주	토의주제	
개념 및 원리	개념에 대한 의견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개념의 정의	주민 참여 자원봉사
경험 및 실천	직접 실천할 전략 제시	지역사회 참여 방법 미래모습 실현을 위한 실천 방법
	경험제시 및 공유	지역사회 참여 경험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참여 경험
아이디어 도출 및 개발	전문적 전략 제시	지역 문제 해결책
	설계 및 개발	상상한 지역의 미래 모습을 실현하는 방법 찾기
학급 및 수업운영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미래 우리 지역의 발전 모습 상상하기
		2학기 우리 학급의 모습 상상하기 나의 미래 상상하기

이상의 범주에서 보듯이 월드카페는 사회과 학습모형의 대부분에서 적용 가능한 수업방법이다. 경영분야에서 적용되는 월드카페는 사회과교육의 학습모형으로는 문제해결학습이나 탐구학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월드카페를 협동학습과 토의학습의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한다면 개념 및 원리학습에서도 충분히 적용할만하다.

3. 운영방안 예시

NSRF(2010)에서는 월드카페를 저학년에 적용하는 프로토콜로 호스트용 목걸이 분배, 그림을 그리거나 나열하는 방법의 허용, 이동하기 쉽게 모듈별 책상 배열, 실제와 관련되고 고급사고력을 신장하는 질문 2가지 사용을 권장했다. 고학년에서는 모듈 내에서 번호를 정하고 교사가 특정번호를 호스트로 지정, 첫 번째 대화에서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나누고 두 번째 대화에서 현실세계와 관련짓는 질문 사용하기를 제안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주제에 대해 깊이 사고하는 방법으로 월드카페를 활용했다.9) 1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2~3주의 기간을 소요했다. 우선, 토의에서 찾을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9) <http://www.explorelementary.org/world.php> 게시물 중 Stacey Stevenson이 쓴 글을 요약하여 옮긴 내용임.

전체를 대상으로 대화를 나눈다. 이때 그림자료를 제시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내용에 적합한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월드카페에 대한 기대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월드카페가 무엇인지, 실행할 월드카페의 구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월드카페 개최 첫날에는 이동하지 않고 한 모둠에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호스트가 없었다. 학급 전체에서 각 주제에 대해 대화했다. 둘째 날, 각 모둠에서 다른 주제에 대해 대화했고 학생은 모둠을 이동했다. 호스트는 교사가 첫째 날 이해수준 정도를 파악하여 지명했다. 각 모둠자리에는 아이디어를 기록할 수 있는 포스트잇을 비치해두었다. 끝으로, 교사가 학생들이 메모한 포스트잇을 벽에 정리했다. 학급 전체에서 월드카페의 진행방법 및 과정과 다음에 기억할 것에 대해 토의했다.

이상은 월드카페를 토의수업과 협동학습의 한 방법으로 활용한 경우이다. 월드카페의 목적을 지향하면서 초등학교 사회과 수업에서 활용하기위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유의미한 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한다. 환경설정은 기여를 결정하므로 목적, 참가자,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목적은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사회과 월드카페는 학습을 위한 상황으로 설정된다. 주제에 대한 이해나 문제의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월드카페를 적용하므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 학급 규칙을 정하는 월드카페라면, 이름에 학반을 넣어 '5-3카페'라고 할 수도 있고, 발전하는 지역의 미래 모습을 상상한다면, '미래카페'나 '상상카페'라고 이름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가자는 학생이다. 변수는 다양하다. 우선 학습방법은 주제에 관한 설명을 교사가 한 뒤,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을 몇 명이 발표하고 나서 소집단 토의로 들어갈 수 있다. 이에 앞서 게시판에 월드카페의 주제를 공지하여 학생들로 기대하게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호스트가 될 학생들을 사전에 교육한다면, 처음 시행하는 월드카페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진행을 할 수 있다. 대화와 전시가 가능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상을 배열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한다. 카페 시행 중에 반복해서 카페의 목적과 절차를 강조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에 초대되었음을 인식시킨다.

대화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청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대화의 돌맹이, 시각적 언어 표현, 침묵의 시간을 들 수 있다. 대화의 돌맹이를 낀 사람이 말할 동안 나머지 사람은 경청한다. 경청한 내용을 색깔펜을 통해서 테이블에 깔려있는 전지에 메모를 한다거나 그림-마인드맵-개념도 등으로 표현한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각각의 관점이 어떻게 주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찾는다. 함께 들은 내용을 시각적 언어를 통해 함께 다듬는다.

테이블을 이동할 때마다 학생들은 저마다 그 질문에 대해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된다.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대화의 앞서, 교실 내부를 각 모둠에서 나온 결과물로 전시회처럼 꾸밀 수 있다. 그리고 파트너를 정해서 함께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각 모둠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자리로 돌아와 개인적인 감상을 모둠에서 나눈다. 종합된 각 모둠의 아이디어를 한쪽 벽면이나 칠판에 시각적으로 정리해 두고 교사의 진행으로 전체 대화를 나눈다.

이상의 월드카페 전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카페호스트로서 교사는 우선 학생과 교사 자신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정해진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수업진행과는 달라 교사가 수업에서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할까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월드카페를 통해 좋은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 해도 대화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진행하는 교사 자신에 대한 믿음과 학생들이 충분히 대화를 통해 통찰을 얻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학생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학생으로 하여금 대화에 참여가 아닌 기여할 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성과 감성을 연결하는 환경적 자극이 된다. 이는 다루는 질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모든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대화에서 한 마디 말 또는 책상위에 자신의 생각을 끄적일 수 있도록 질문을 구조화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는 학생으로 하여금 사전에 참여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기존 수업에서도 차시예고를 통해 기대감을 심어준다. 월드카페는 교사주도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주도의 수업이기 때문에 더욱 학생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월드카페를 사회과교육에 적합한 하나의 학습방법으로 보고, 월드카페의 교육적 함의와 활용방안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최근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창의인성 함양이라는 서로 다르면서도 교집합을 가진 두 특성을 기르기에 적합한 절차와 목적을 지닌 월드카페의 특성 및 운영방법과 이의 효과를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현 교육과정에서 시행되는 사회과교실에서의 실제 운영의 장면을 그려보았다.

월드카페는 기존의 토의방식을 조금 더 열어두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 고정된 좌석에서 집중된 하나의 문제만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이동하면서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 깊이와 폭을 확장시킨다. 특히 토의(**discussion**)가 아닌 대화(**conversation**)의 방식을 채택해 분리보다는 함께하는 그리고 경쟁적이기 보다는 협동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참여(**participation**)를 넘어선 기여(**contribution**)를 추구한다.¹⁰⁾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므로,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되고, ‘대화’를 통해 사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므로 방법과 내용면에서 효과적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아이디어가 정교화 되고 확장됨과 동시에 전체의 아이디어가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결과를 가져오며, 소속감과 정체성을 획득하고, 말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주변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사회적 사실과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과 개념을 배우고, 이를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력을 지녀야 한다. 또, 이러한 지식과 사고를 사회적

10) 각 단어의 어근의 어원을 살펴보면, dis는 apart(~로 떨어진, 나누어진), con은 together(함께)의 의미를 갖고 있다. part는 그 자체로 부분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길러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월드카페가 바로 이와 같은 사회과교육의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 월드카페가 활용되는 곳이 경영이나 리더십 분야다 보니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방식을 초등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성인에게는 중립적인 공간으로서 커피나 차를 마시는 카페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초등학생에게 그와 유사한 공간을 카페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또한 초등학생이 중립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곳에서 하는 활동 자체가 성인과 같은 ‘터놓는 대화’가 아닐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공간조성이 월드카페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초등학생이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하기에 수업에서 월드카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많은 수가 사회과를 어려운 교과로 인식한다. 사회과 수업에서 진도에 맞추어 내용 지식의 암기를 중심으로 학습활동이 전개되고, 내용의 많은 부분에서 학습자의 삶과 유리된 사회 모습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다. 이와 같은 사회과의 교과 내외적 특성을 고려할 때, 월드카페는 사회과에 대해 바람직한 인식과 사회과 수업의 본질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회과 토의수업에서 월드카페를 무조건 활용하기 보다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차근차근 준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월드카페를 적용한 사례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시행된 초등학교의 월드카페 사례는 월드카페 자체의 목적보다는 학습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경우였다. 물론 월드카페를 활용하여 학습을 진작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사회과 토의수업에서 월드카페는 방법적인 부분과 더불어 목적적인 부분을 동시에 도모하는 실제적인 현장 적용을 토대로 그 적합성을 타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토의수업의 한 방법으로서 월드카페를 소개하고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적용할 만한 주제와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외국과 비교할 때, 월드카페를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아직은 소개의 단계에 있어 그 가치가 검증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월드카페를 활용하는 다양한 모임에서 그 효과는 검증되고 있다. 또한 월드카페가 주제에 관해 협동학습과 자기주도 학습, 마인드맵과 개념도를 활용한 토의수업의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과 교수학습과 관련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질을 기른다는 점에서 적절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월드카페가 사회과 수업방법의 이상(理想)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연구를 시도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 고훈석(2001). 초등학교생들의 사회과 협동학습 과정에 관한 문화기술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09개정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 권부경(2007). 사회과 수업의 재개념화: 대화수업.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설규주·정문성·구정화(2011). "사회과 토의·토론수업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연구." 열린교육연구. 제19권 3호. 한국열린교육학회.
- 손병노(1996). "사회과 협동학습의 의의와 이론적 토대." 사회과교육. 29호. pp.163~190.
- 이광성(2004). 사회과 수업에서 협동학습이 고급 사고력에 미치는 교수 효과와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 이상우(2011). 협동학습으로 토의 토론 달인 되기. 시그마프레스.
- 이용숙(2004). "토의·토론 학습에서의 질문과 협동학습구조의 활용." 7호. 열린교육실행연구. pp.33-61.
- 이원민(2011). 개념도를 활용한 협동 학습이 사회과 교과흥미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문성(1994). 사회과 학업성취에 대한 협동학습의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문성(2008). 토의·토론 수업방법. 교육과학사.
- 장경원(2012). "학교에서의 토의수업 방법으로서의 월드카페에 대한 연구." 2012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집.
- Brown, J. & Isaacs. D. (2005). *The World cafe: Shaping Our Futures Through Conversations That Matter*. Ingram Pub Services. 최소영 역. (2007). 월드카페: 7가지 미래형 카페식 대화법. 북플래너.
- Dan & Jillian Fowler(2010). *NSRF Protocols and World Cafe in Kid-friendly Language*. Fall. Connections: the Journal of the National School Reform Faculty.
- Odd Arne Thunberg(2011). *World cafes and dialog seminars as processes for reflective learning in organizations*. Vol.12 No. 3. Reflective Practice. pp.319~333
- Robert J. Stahl & Ronald L. VanSickle Ed(1992). *Cooperative Learning in the Social Studies Classroom An Invitation to Social Study*. NCSS.
- Martha C. Nussbaum(2010). *Not for profit*. Princeton University Press. 우석영 역(2011).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궁리.

<http://www.worldcafe.com>

<http://www.explorel elementary.org/world.php>